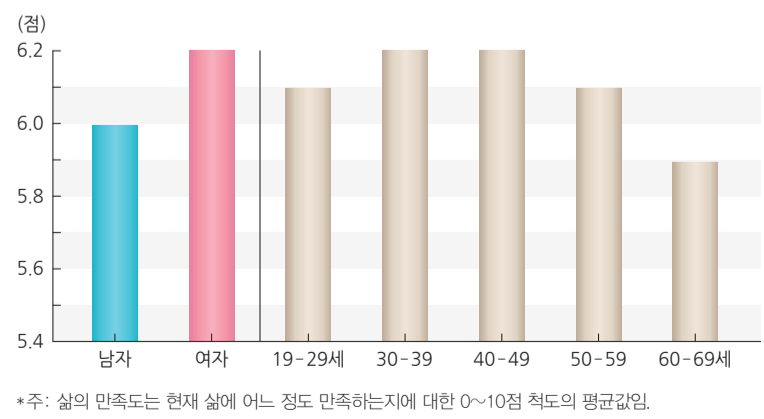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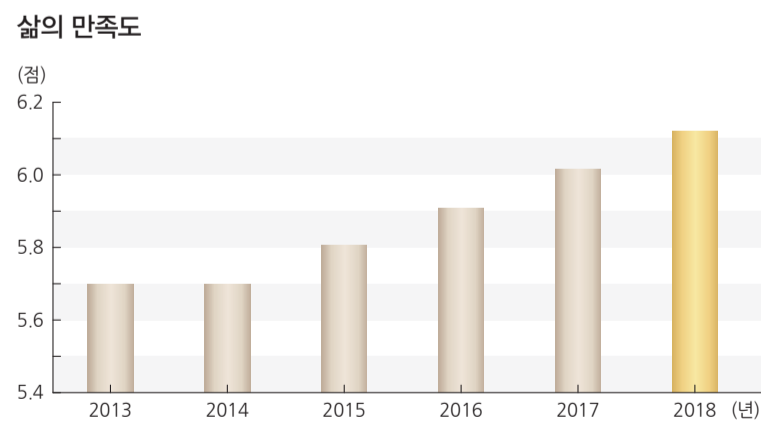


행복은 일상에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이고 삶의 궁극적 목표이다. 그러나 행복의 구체적인 형태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산업화 초기 양적 성장 지향의 개발 시대를 지나 질적 성장 지향의 관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적·객관적 지표 위주의 행복 수준의 평가가 사회적·주관적 지표를 포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표 자체에 대한 다수의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체 등으로부터의 다양한 연구 결과가 미디어에 빈번히 소개되고 있다. 일반에게 공개되는 경제적 지표와 사회적 지표 간 가장 큰 차이는, 전자가 개인의 행복을 지표화하는데 금전이나 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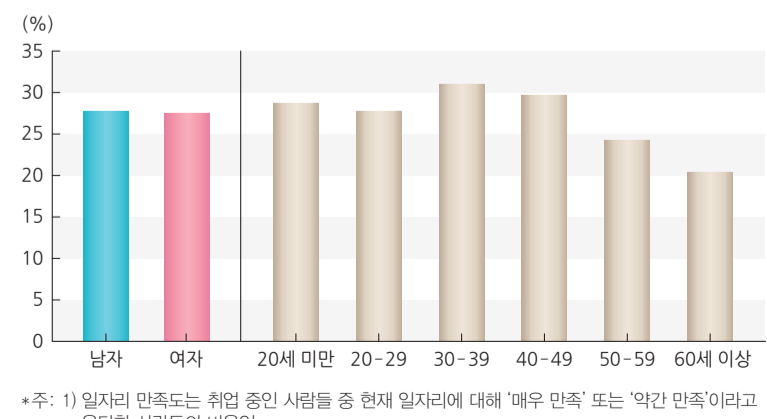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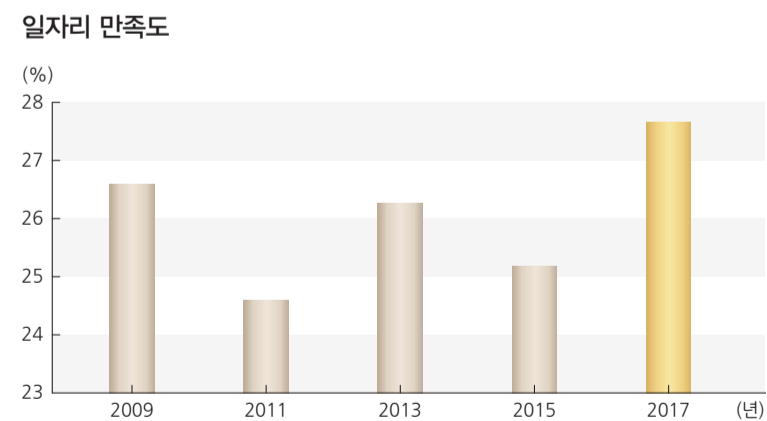
용 등 단일 척도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 후자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척도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삶의 질'은 금전이나 효용 등 단일 지표에 의한 행복 수준의 평가가 갖는 문제를 극복하고, 한 사회나 한 개인의 행복 정도를 보다 사실에 가깝게 표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눈부신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국민 개개인의 수준에서 삶의 만족도 저하, 사회 활력 약화, 사회 통합 문제 등 새로운 사회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마련하고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년 현재 국민 삶의 질은 11개 분야 71개 지표로 관찰되어 있는데, 측정 결과 고용률, 실업률, 대기질 만족도 등 16개 지표가 전기 대비 나빠진 것으로 나왔고, 자가 점유 가구 비율 1개 지표만 동일한 것으로 나왔으며, 나머지 54개 지표는 모두 개선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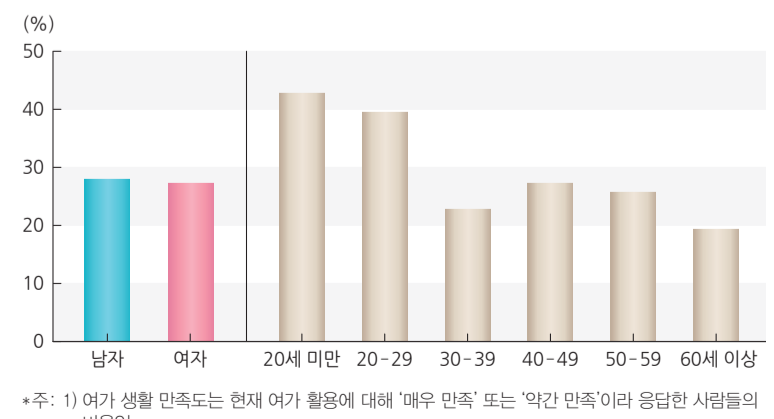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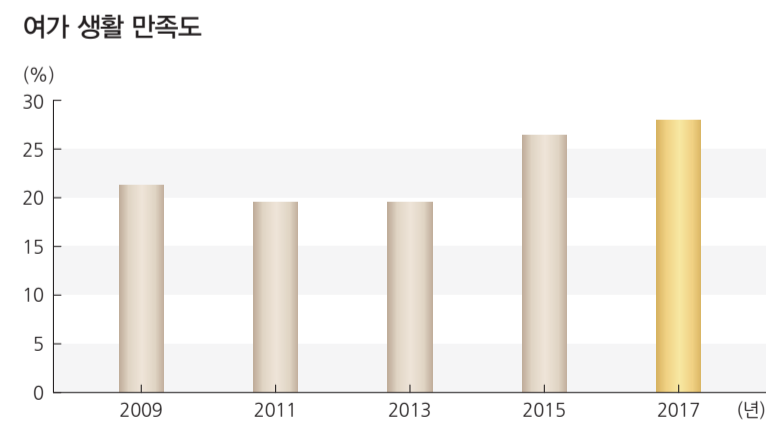
*주: 삶의 만족도는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의 평균값임.

한국행정연구원(2018)



*주: 1) 일자리 만족도는 취업 중인 사람들 중 현재 일처리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09년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청(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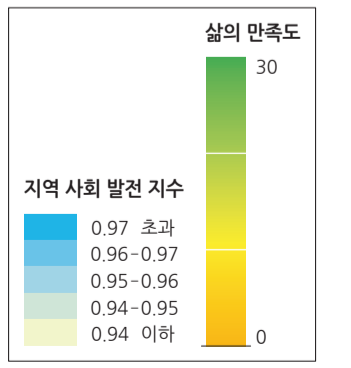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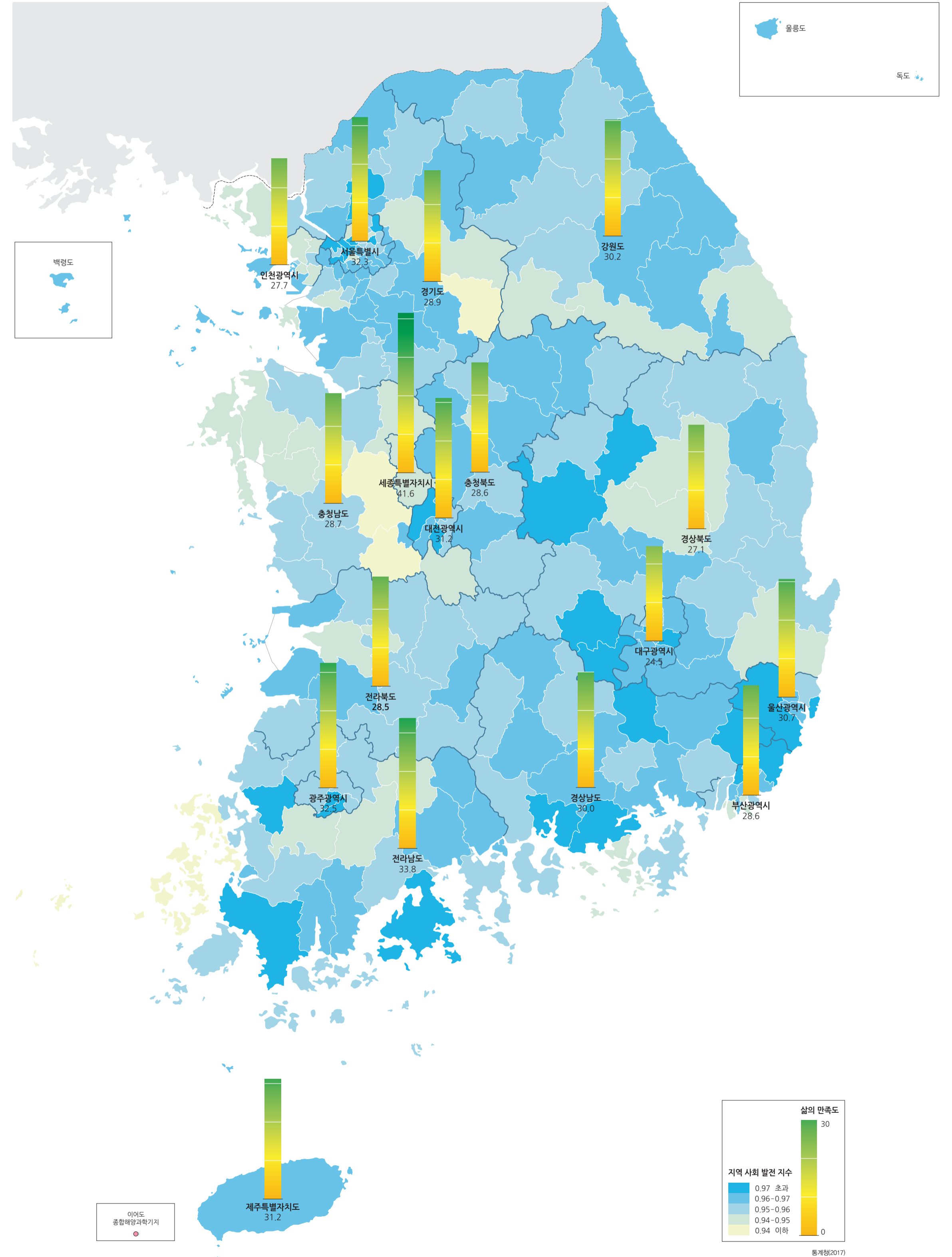


*주: 1) 여가 생활 만족도는 현재 여가 활용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09년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청(2017)

삶의 질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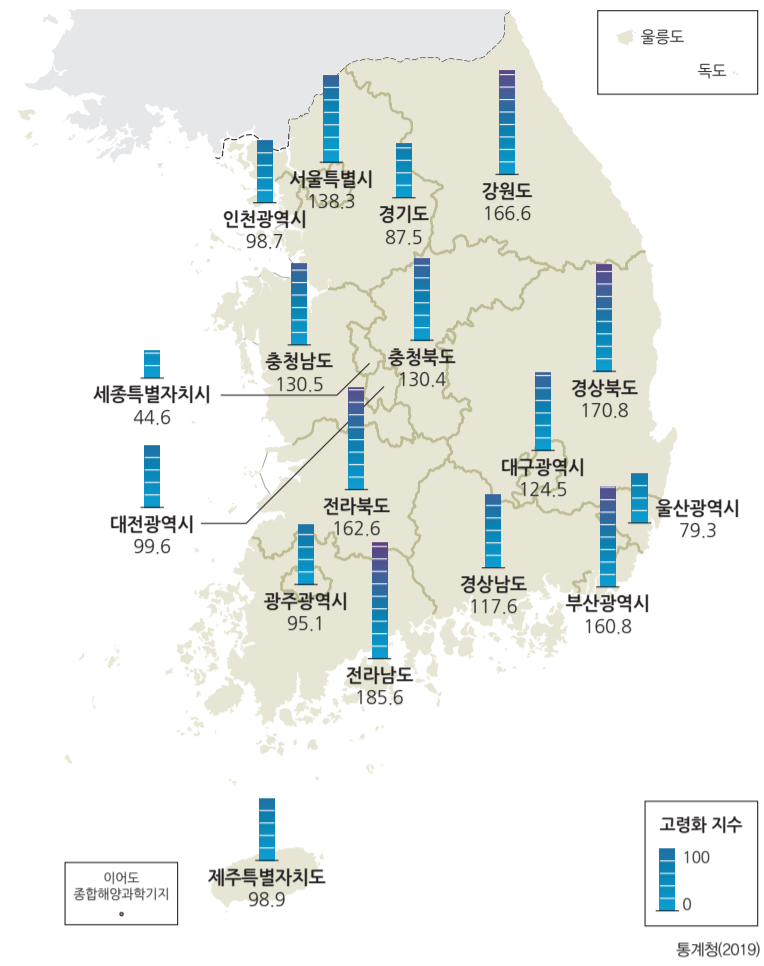
행복 지수(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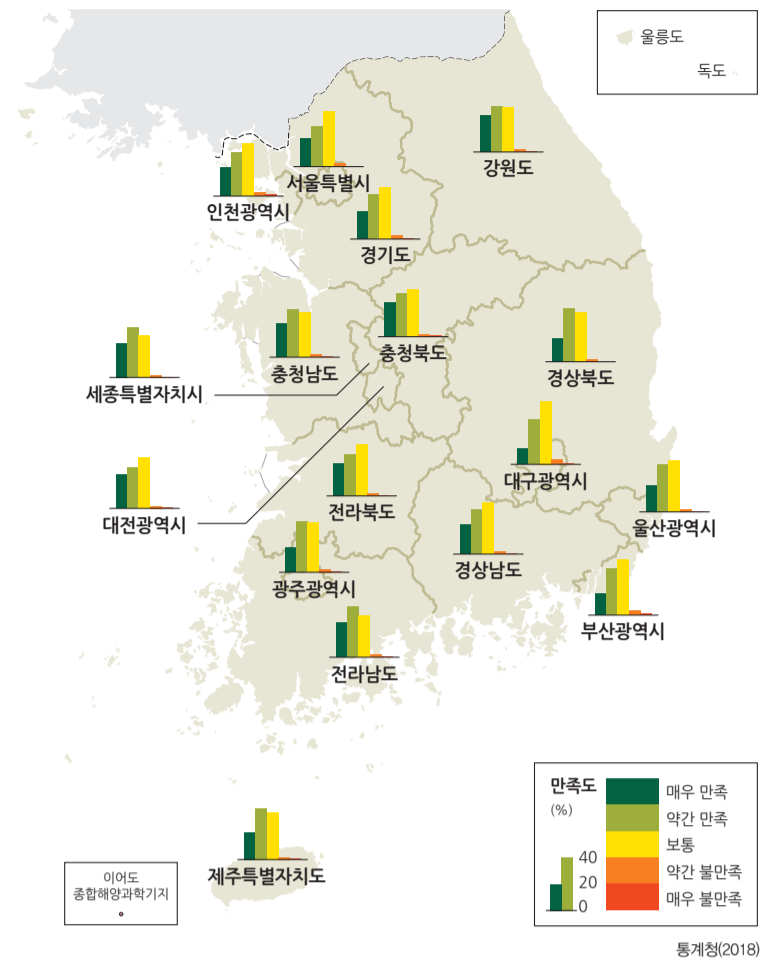
통계청(2017)

건강과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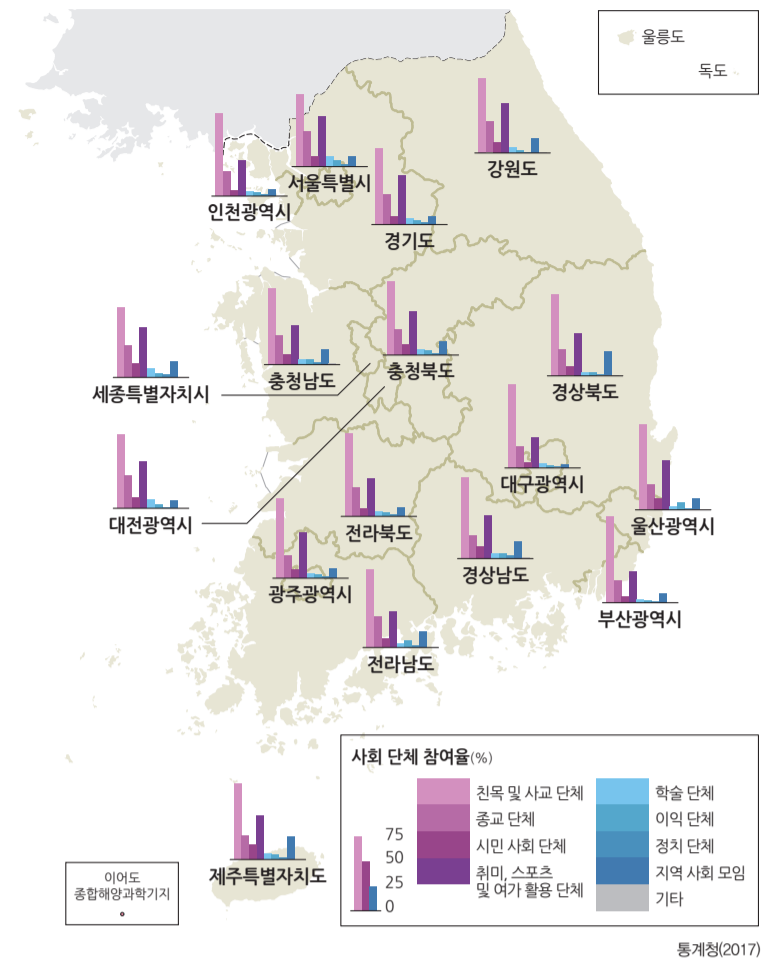
고령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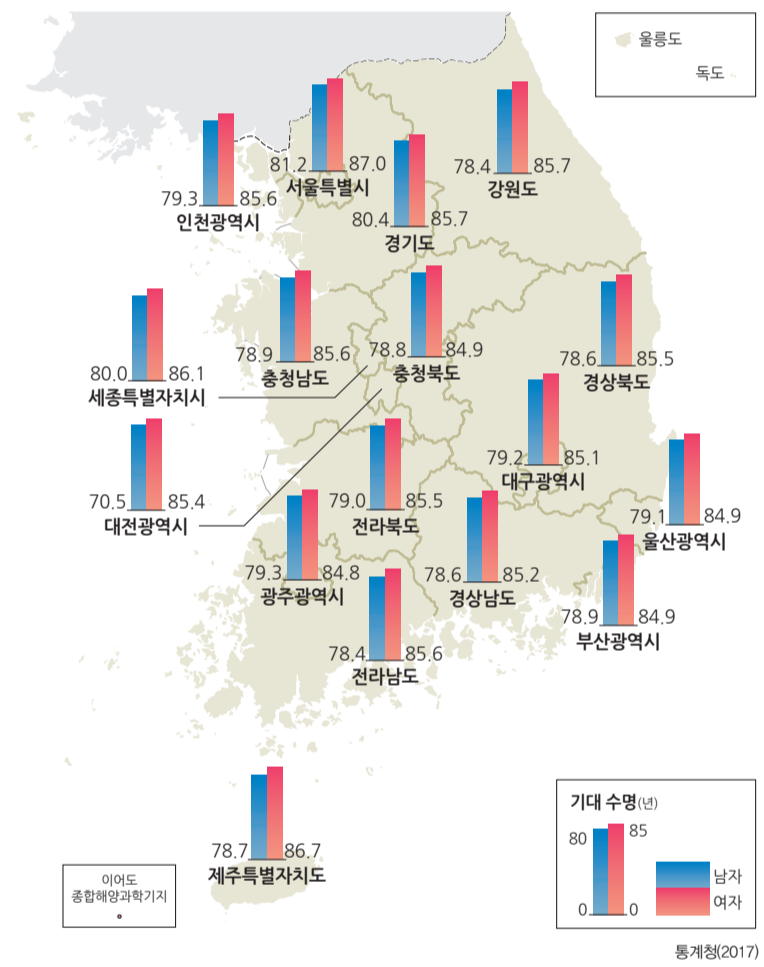
가족 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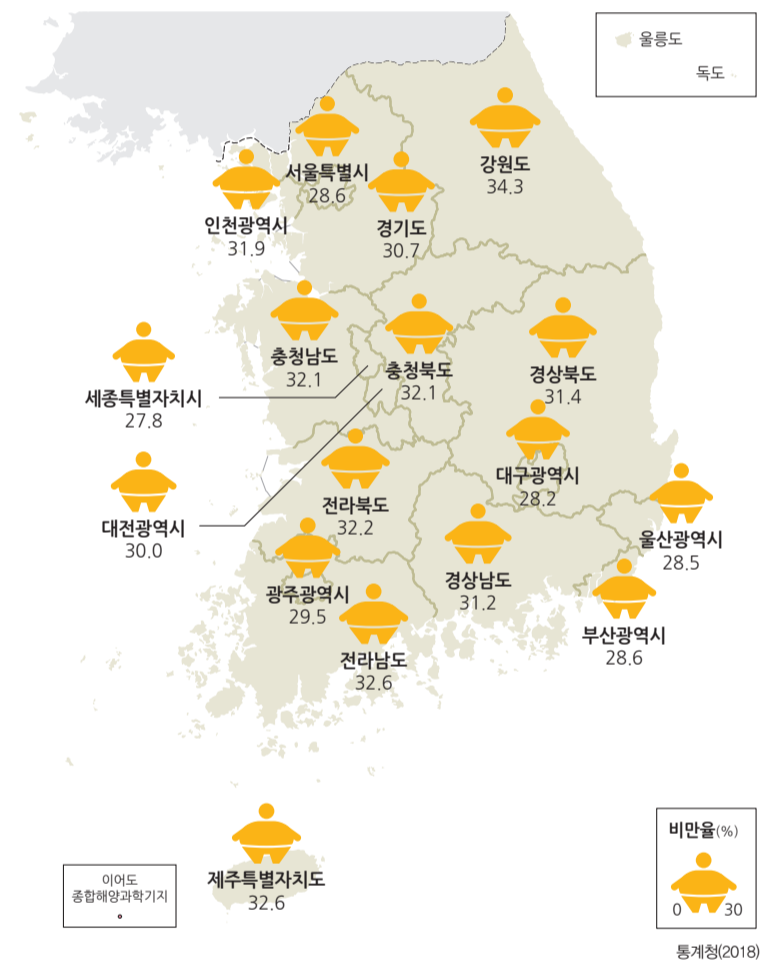
사회 단계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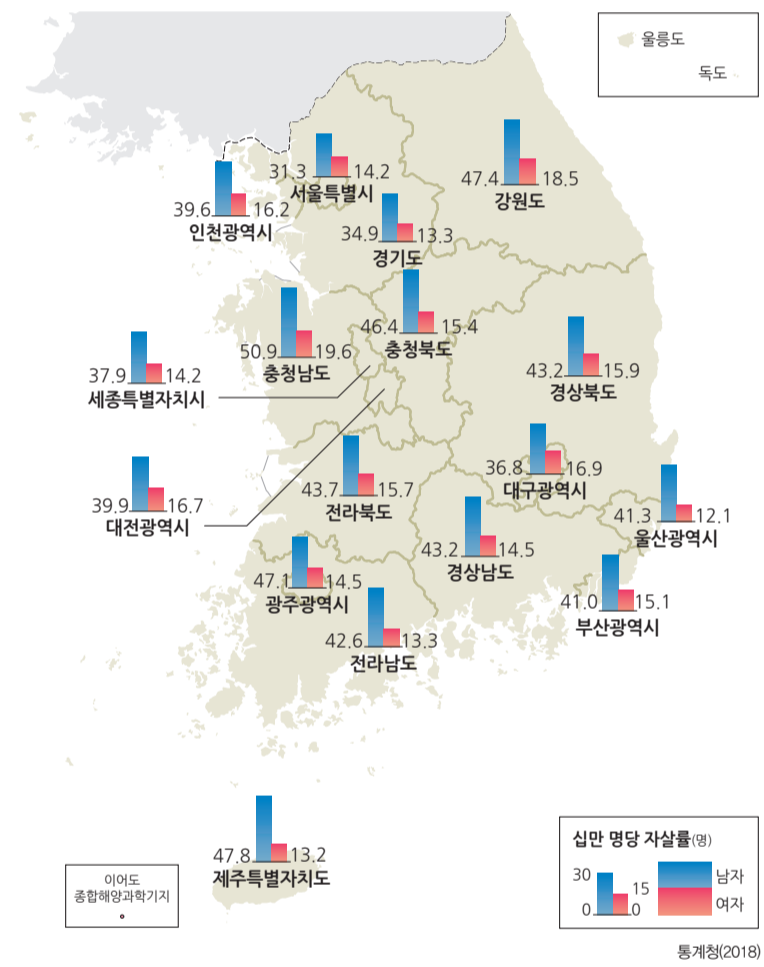
기대 수명



비만율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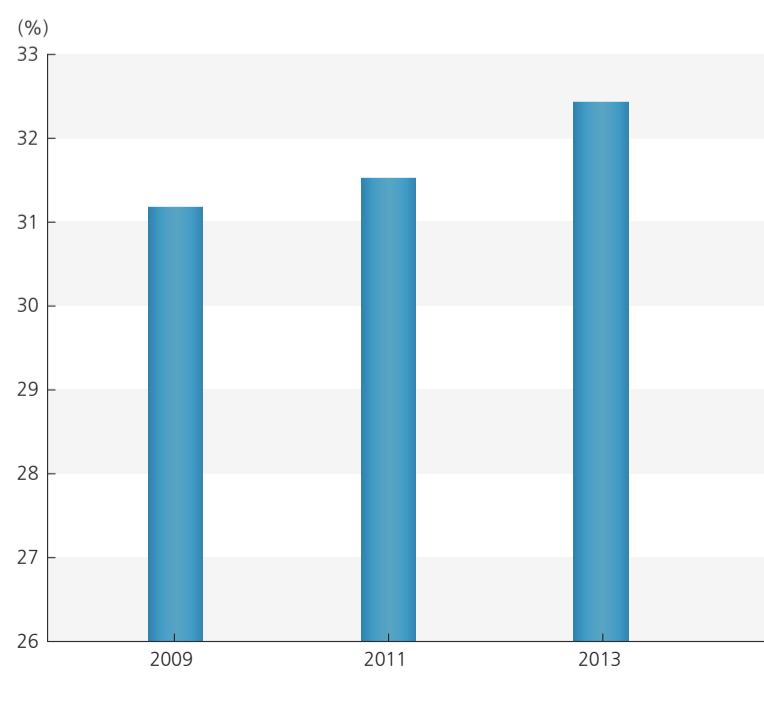


가족과 공동체는 정서적, 육체적, 재정적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개인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통하여 보살핌, 지원, 안전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고, 사회적 가치 및 규범은 가족과 공동체들을 통해 재생산된다. 건강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삶의 양 혹은 길이)와 함께 얼마나 잘 사는가(삶의 질)가 중요하다. 좋은 건강은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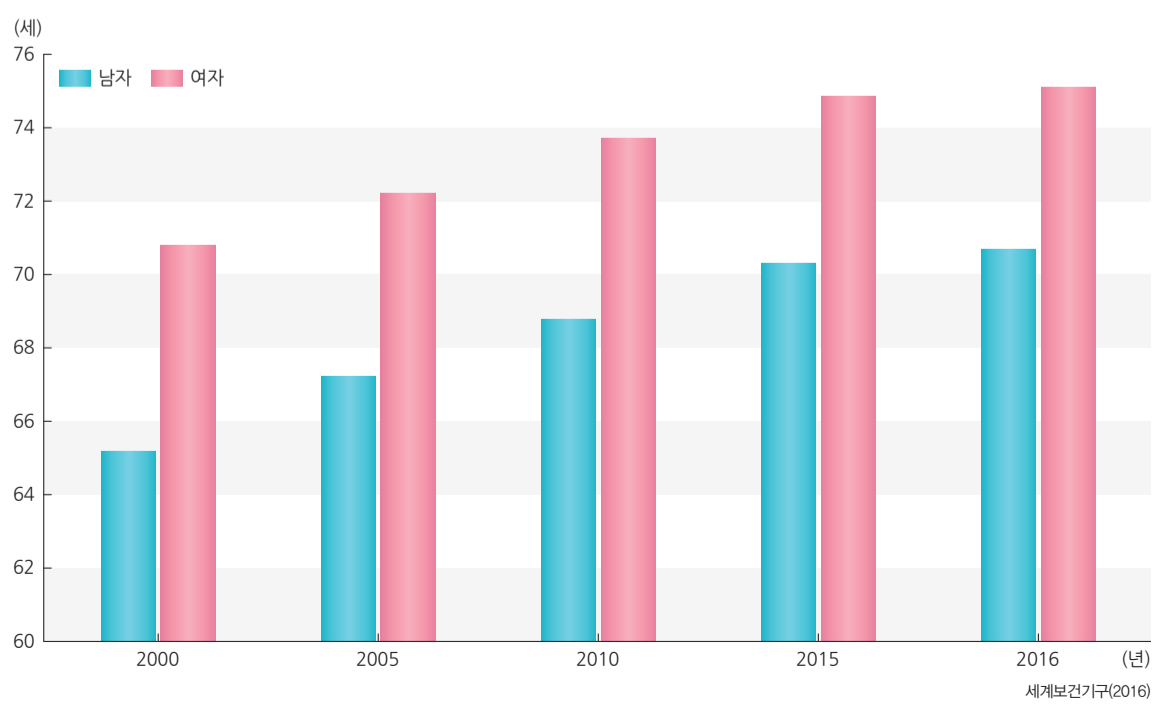
높게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활동 역량을 갖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8년 가족·공동체 영역의 5개 지표 중 두거 노인 비율을 제외하고 가족 관계 만족도, 지역 사회 소속감, 사회 단계 참여율 및 사회적 고립도 지표는 모두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가족 관계 만족도 분포를 보면 세종, 전남, 강원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대구, 부산, 서울 순으로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반면, 인천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36.5%로 가장 낮다. 건강 영역의 7개 지표 중 자살률을 제외하고 기대 수명, 건강 수명, 스트레스 인지율, 주관적 건강 상태, 비만율, 신체 활동 실천율 모두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주관적 건강 상태 분포를 보면 대전, 울산, 서울 순으로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반면, 인천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36.5%로 가장 낮다.

사회적 고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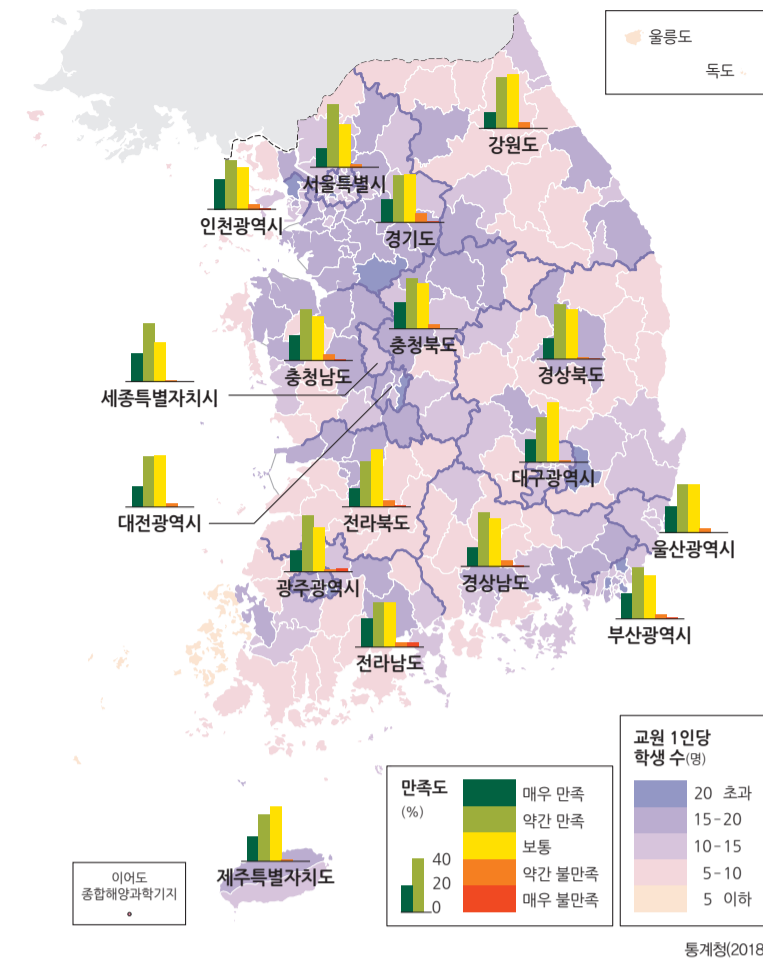


건강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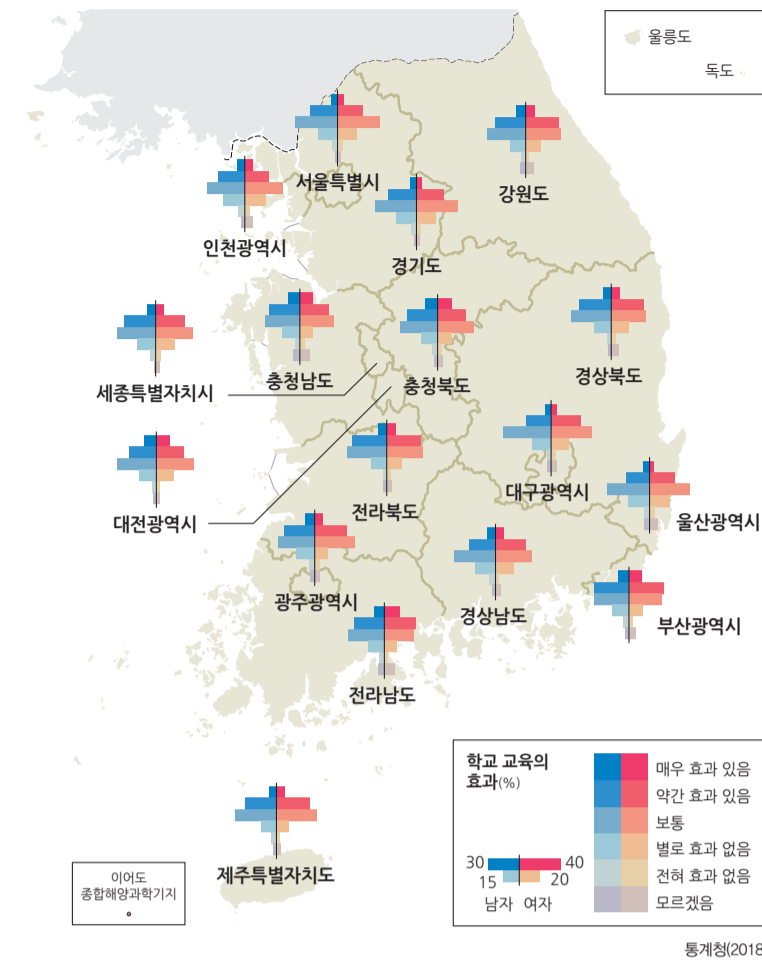


교육과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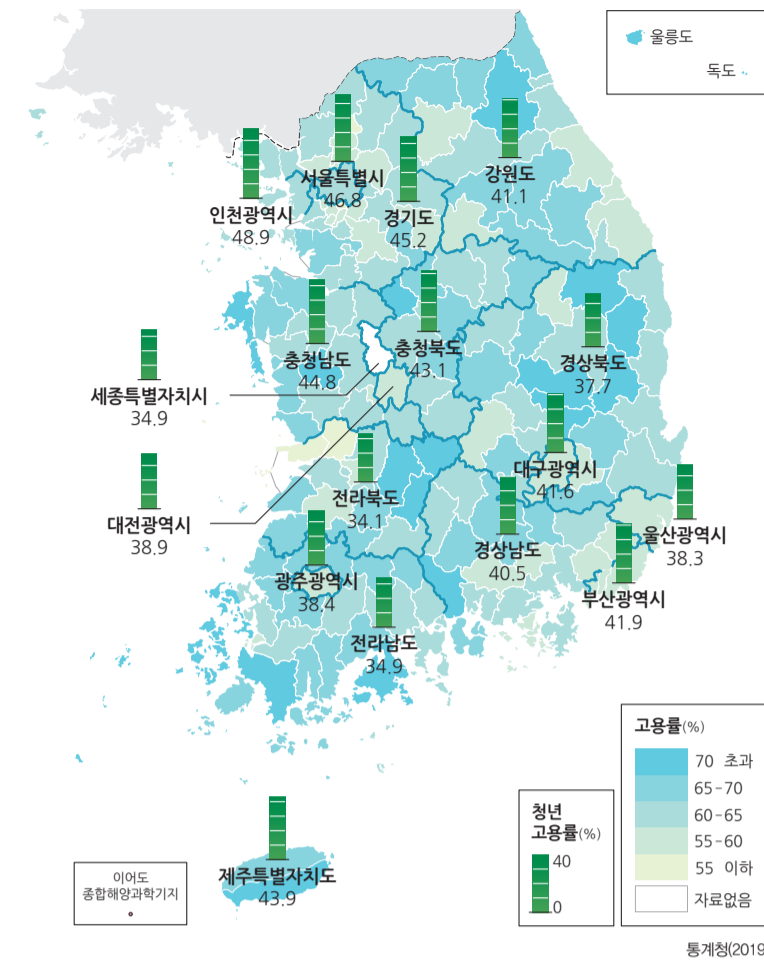
학생의 학교 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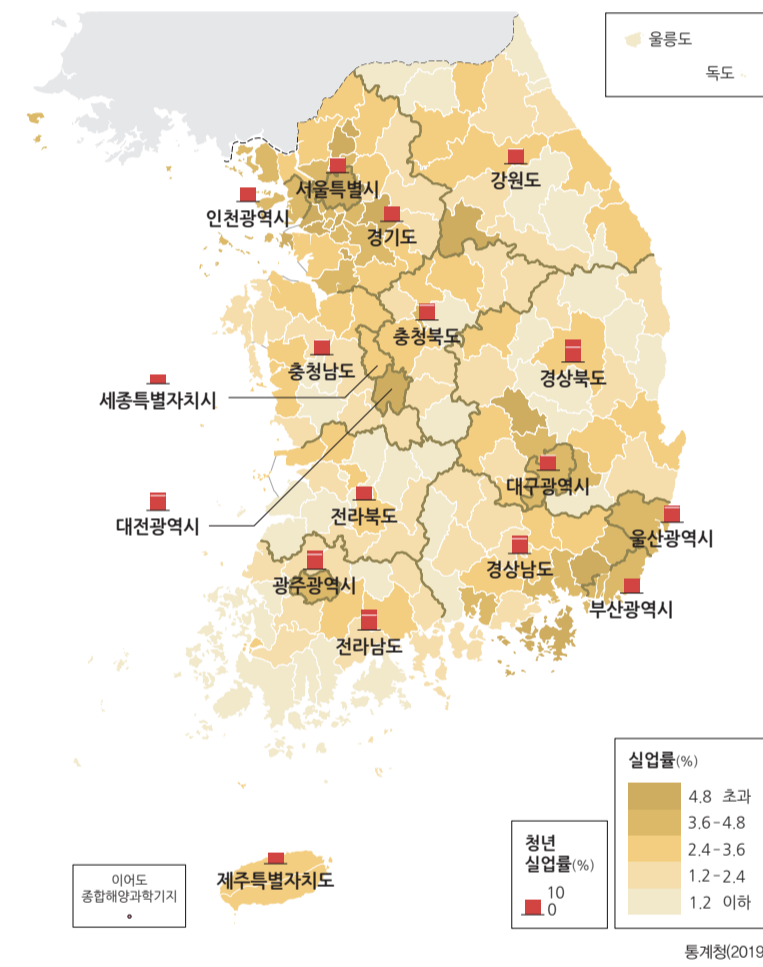
학교 교육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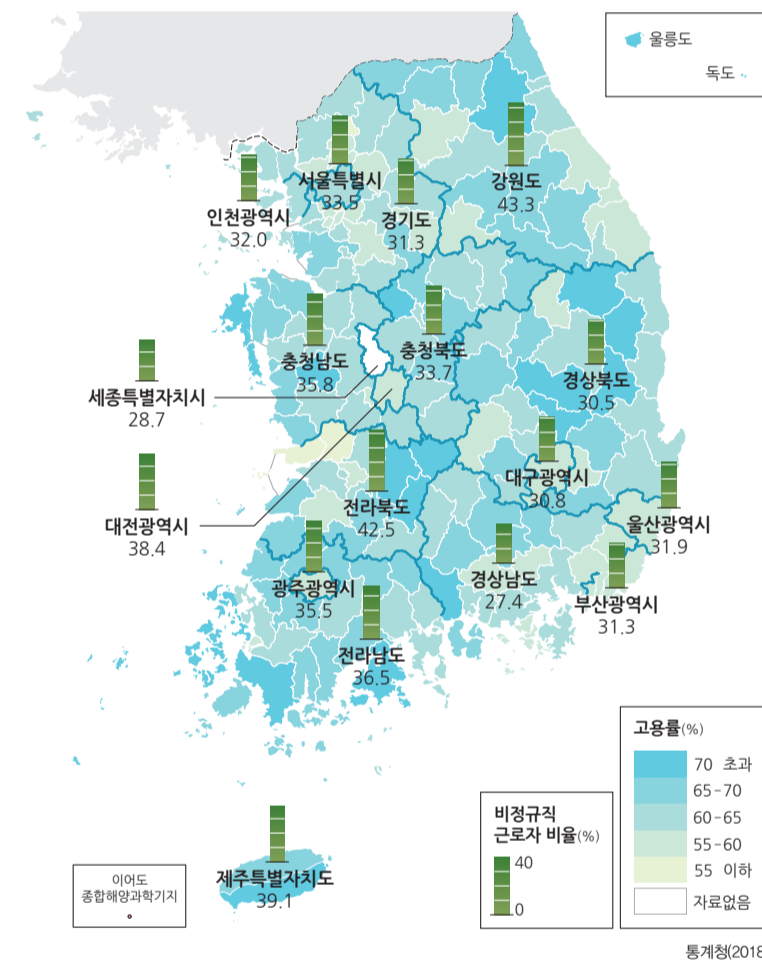
청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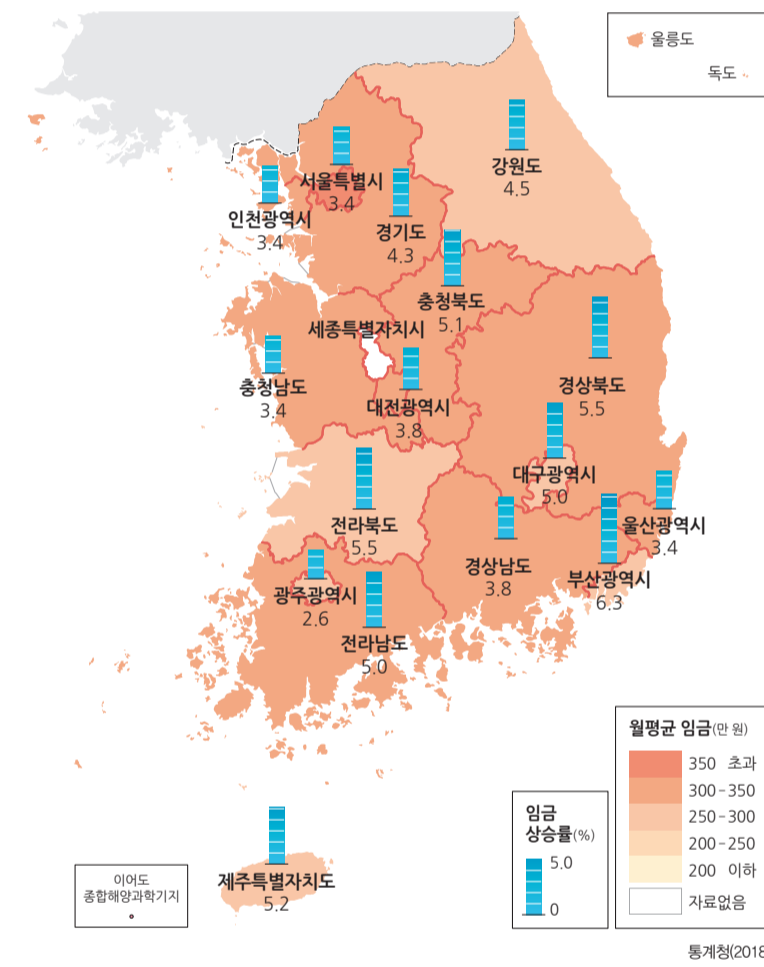
청년 실업률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임금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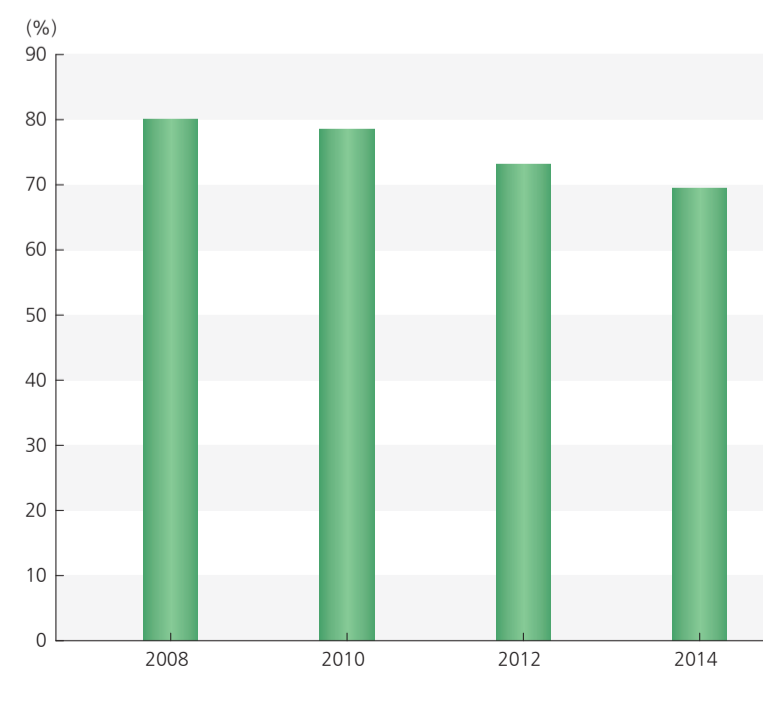


교육은 지식을 습득하고 창출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과 발전을 통해 다시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사회 내 개인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며, 또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이 실현된다. 교육 영역은 교육 기회의 배분, 교육 자원의 동원, 교육 성과 측면에서 측정된다. 한편 경제 활동의 기회, 정당한 보수 지급 여부 및 경제 활동의 질 등은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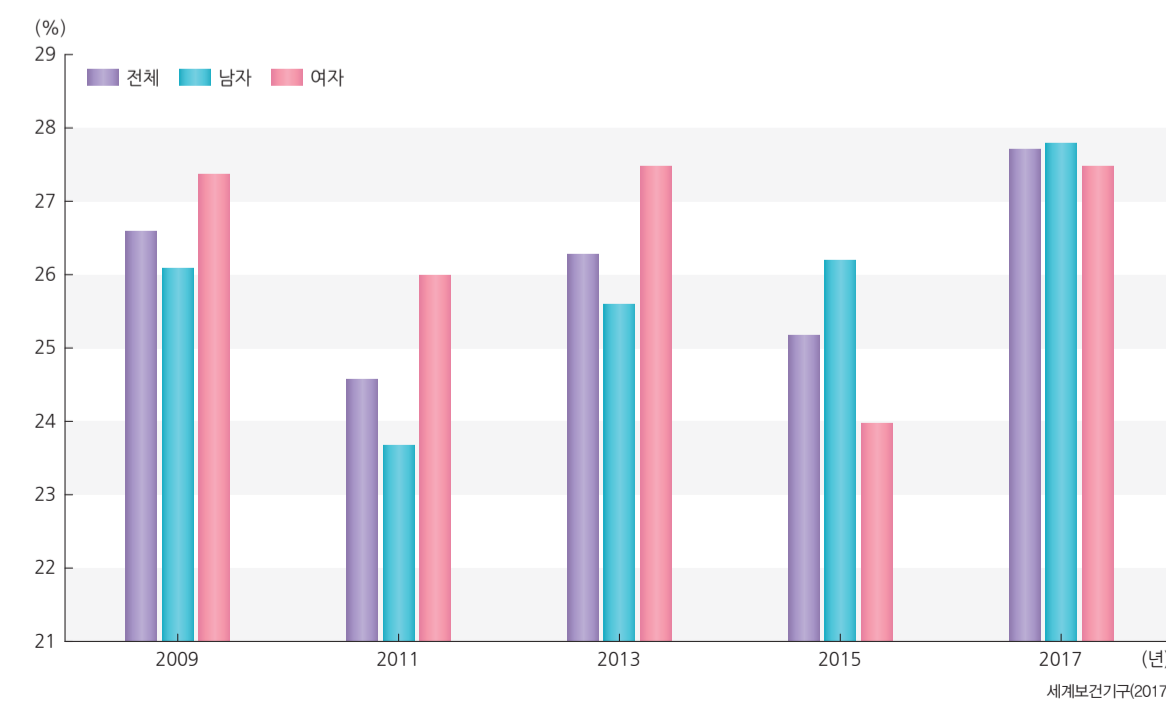
득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따라서 경제 활동의 기회 보장, 적절한 보상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의 개인의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높다고 여겨진다. 2018년 교육 영역의 6개 지표 중 유아 교육 취원율과 대학 졸업자 취업률을 제외하고 교육비 부담도, 학교 교육 효과, 학교 생활 만족도, 고등 교육 이수율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학교 교육 효

과 분포를 보면 부산, 전남, 전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울산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용·임금 영역의 6개 지표 중 고용률과 실업률을 제외하고 월평균 임금, 저임금 근로자 비율, 근로 시간, 일자리 만족도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자리(근로 여건) 만족도 분포를 보면, 세종, 강원, 제주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부산은 22.7%로 가장 낮다.

교육비 부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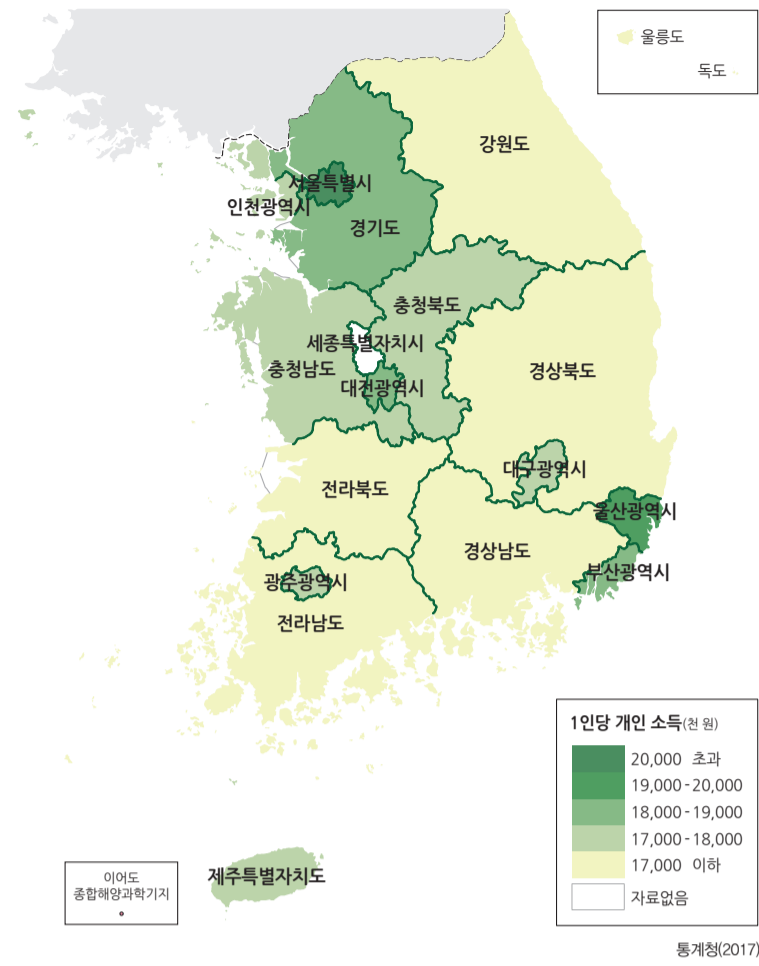


일자리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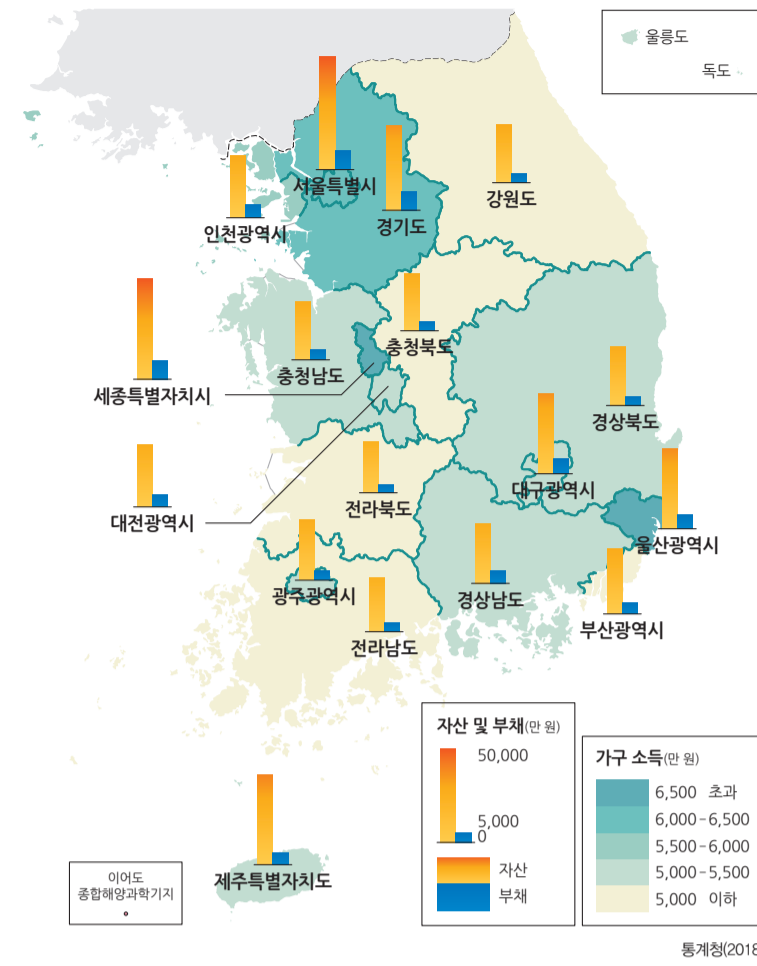


소득과 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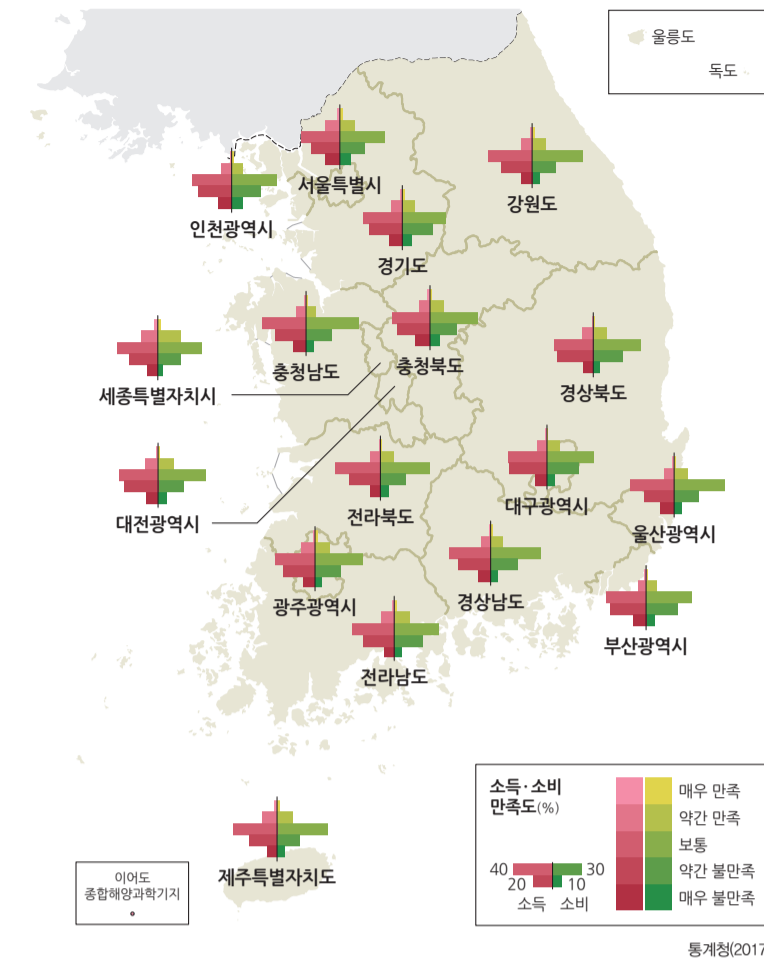
1인당 개인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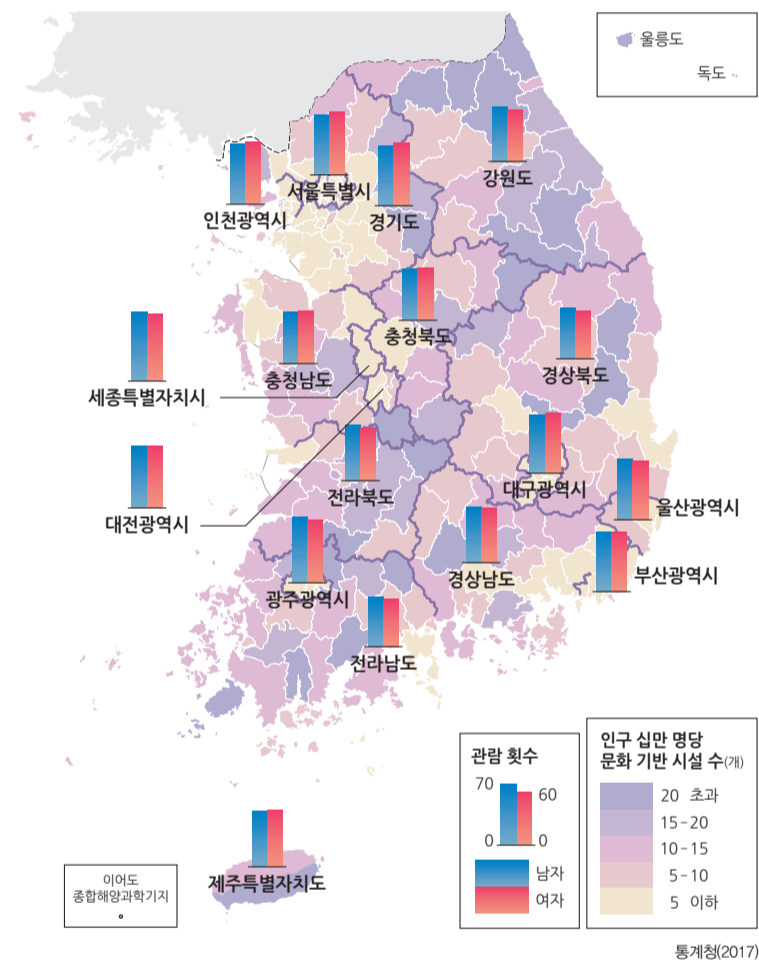
가구 자산 및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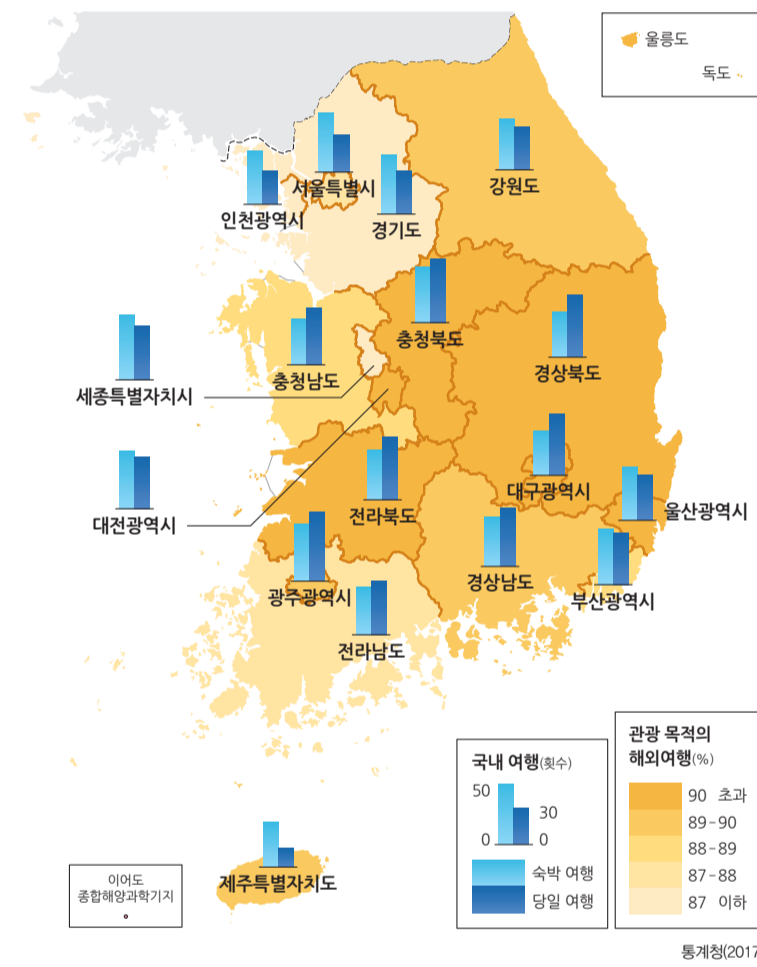
소득·소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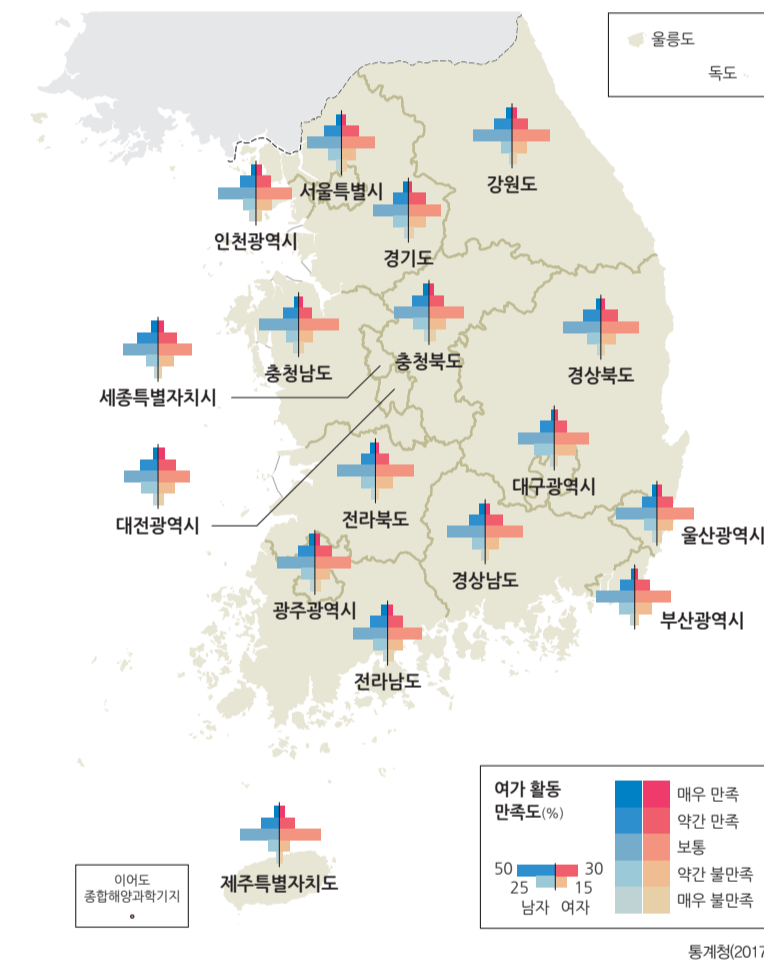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람 현황



국내·해외여행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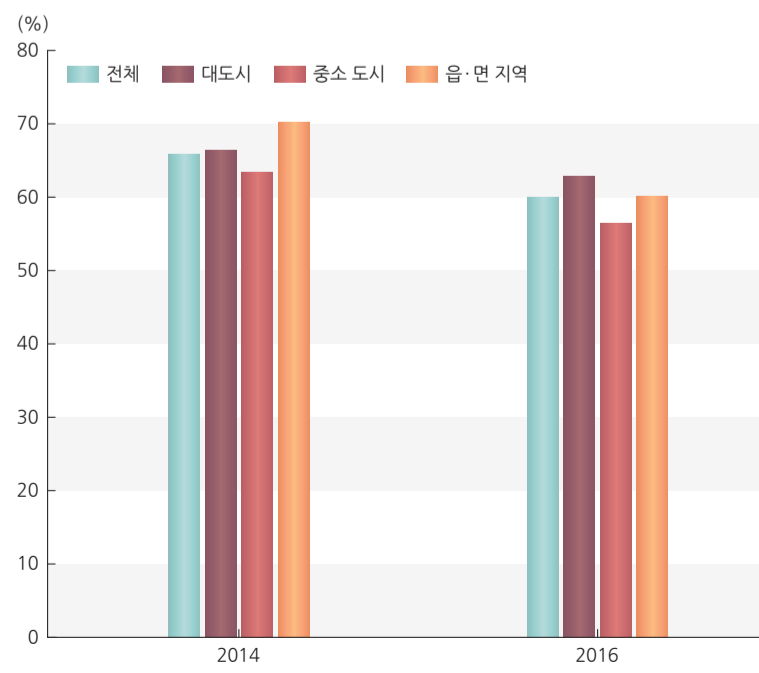
여가 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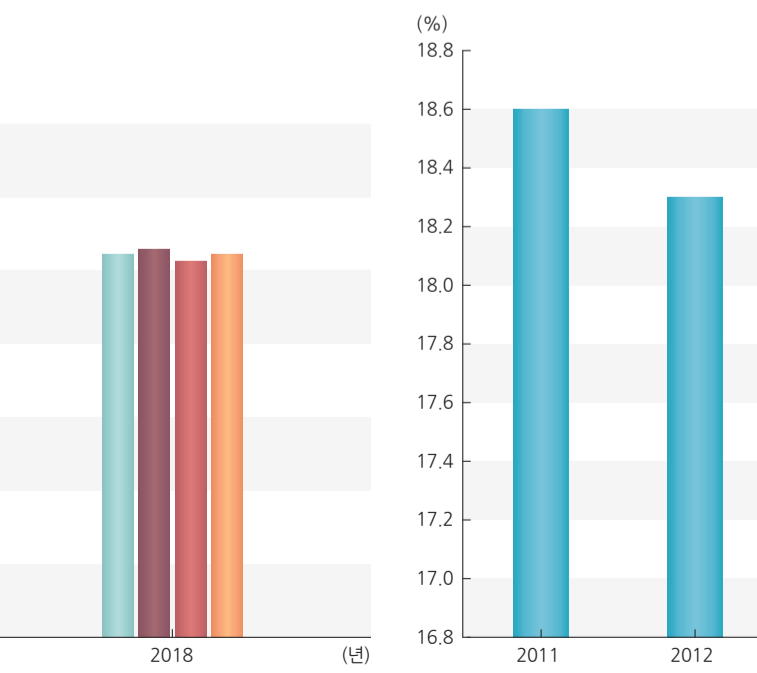
소득과 자산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소득이라는 개인이 보유한 물질적 자원은 소비 활동을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소득 분배는 전체 '사회'의 질을 결정한다. 한편 노동 시간과 대비해서 여가 시간은 스포츠와 같은 신체적 활동이나 문화 예술과 같은 정신적 활동을 통해 개인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계고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문화

예술은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을 형성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다. 2018년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7개 지표 중 가계 부채 비율을 제외하고 1인당 국민 소득, 가구 중위 소득, 소득 만족도, 소비 생활 만족도, 가구 순자산, 상대적 빈곤율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득 만족도의 분포를 보면 세종, 서울, 전남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대구, 울산, 부산은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소비 생활 만족도를 보

여가 시간 충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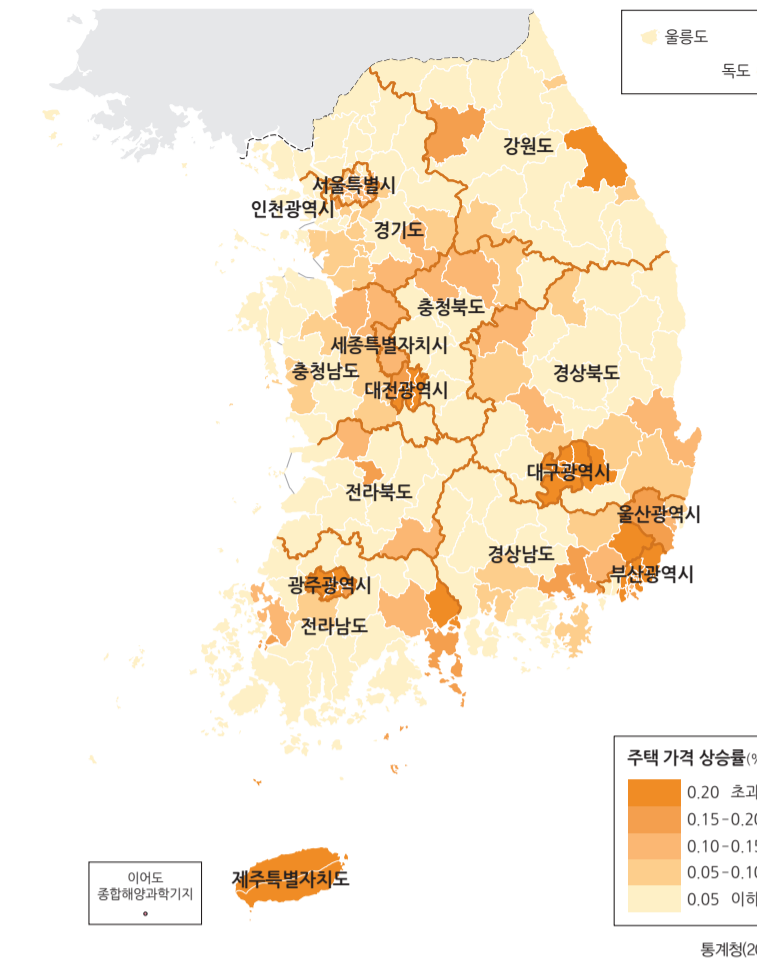


상대적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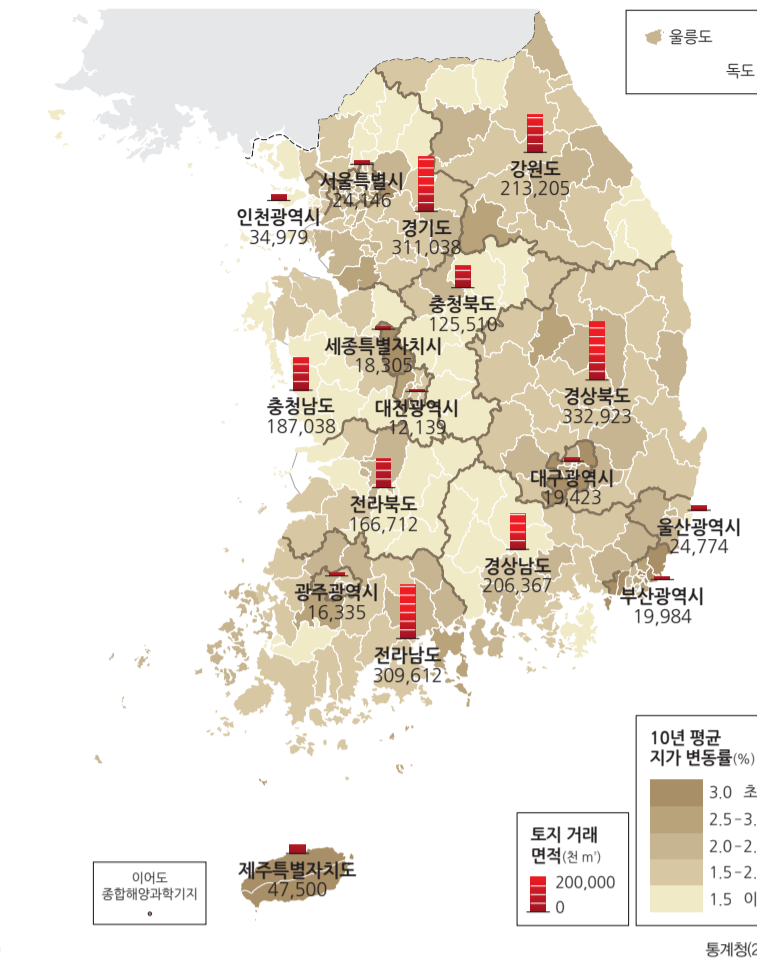


주거와 생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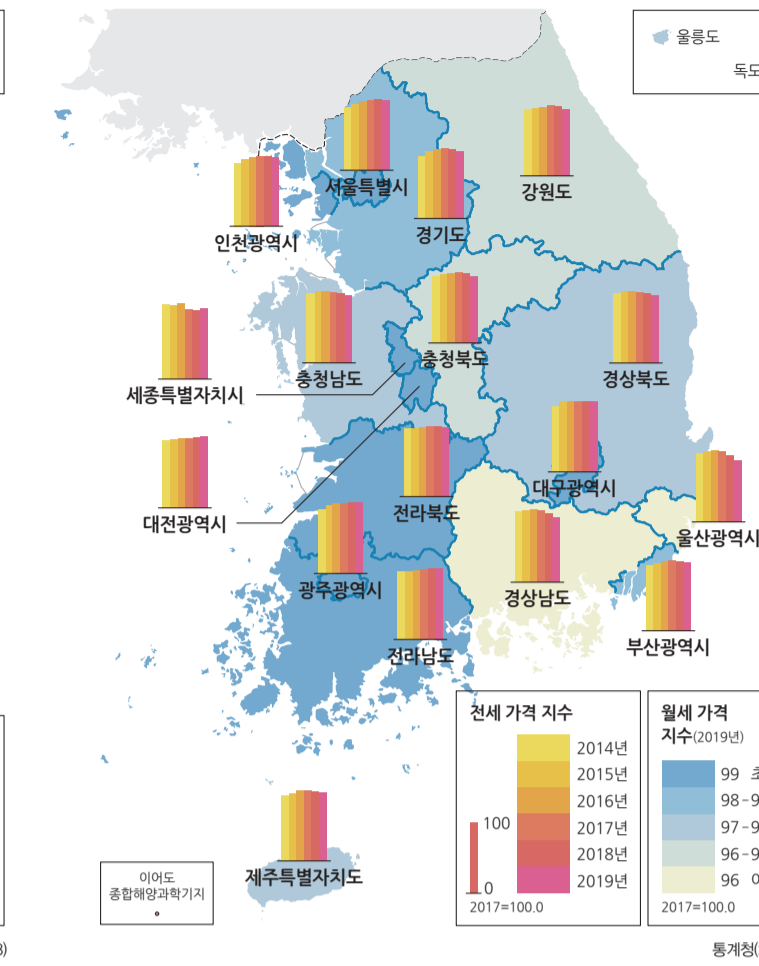
10년간 매월 주택 가격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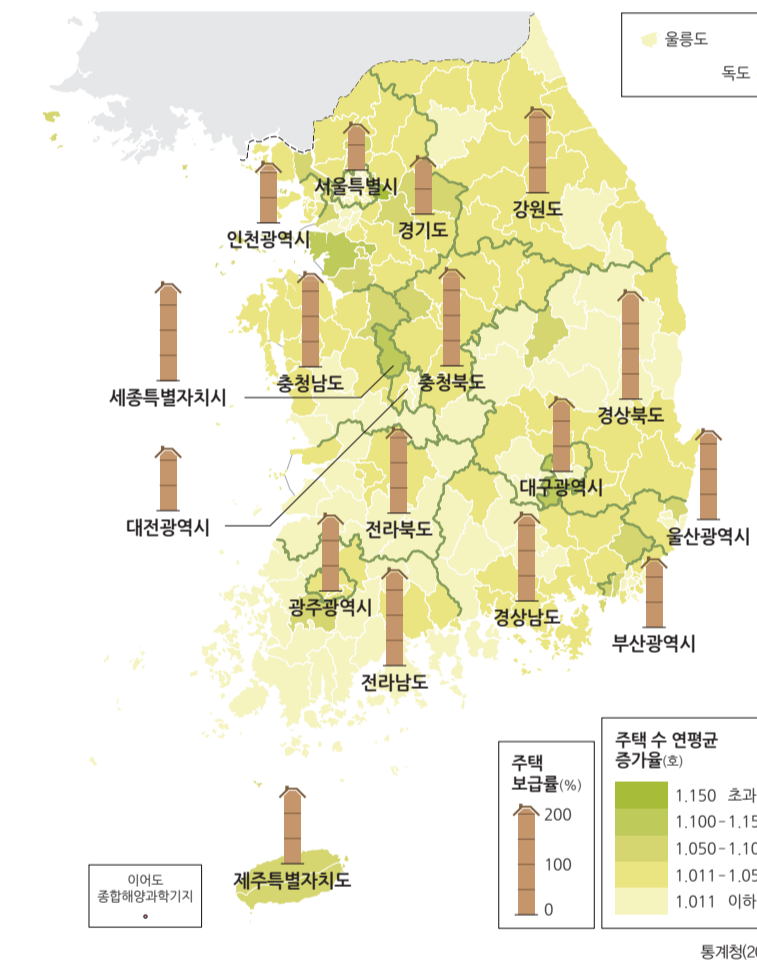
토지 거래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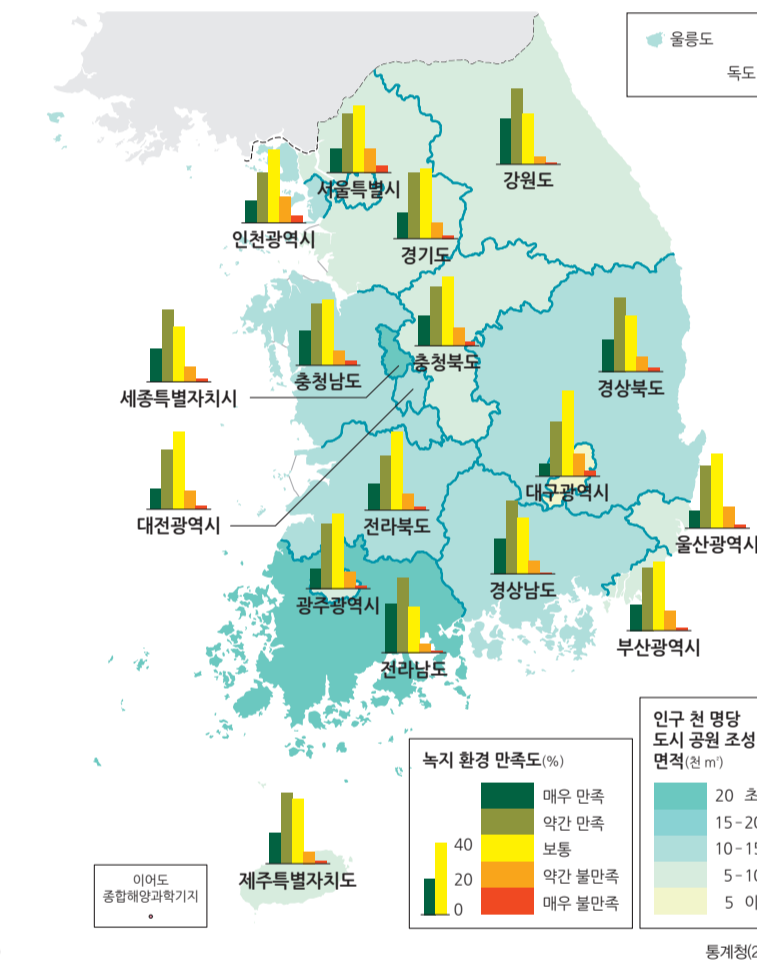
주택 월세·전세 가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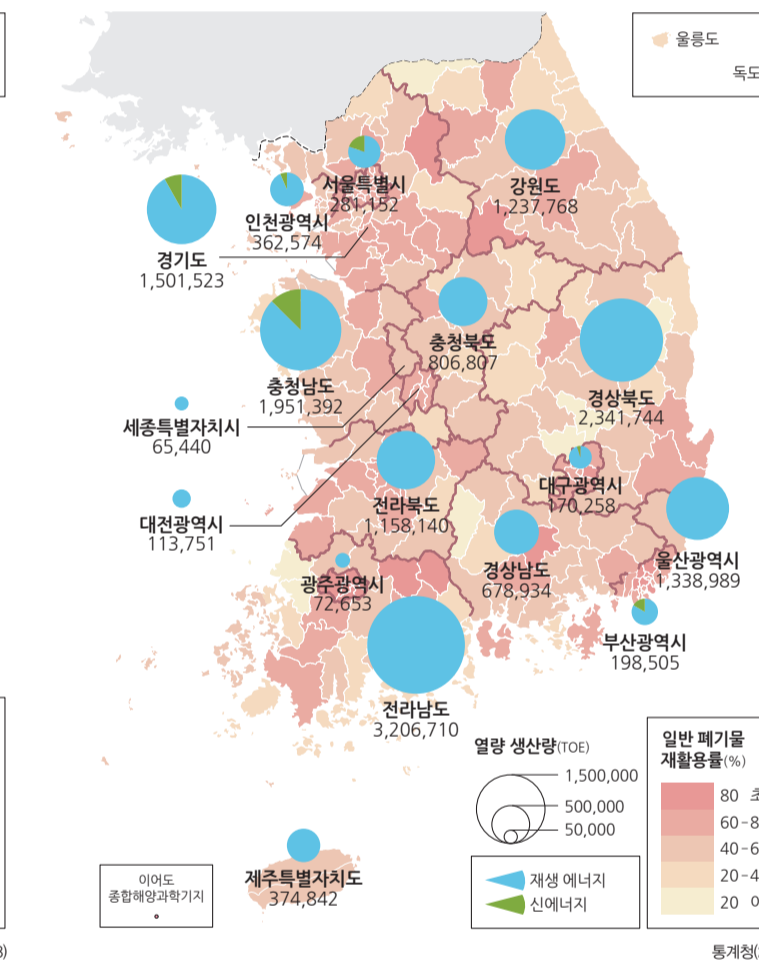
주택 보급률



녹지 환경 만족도



신재생 에너지원별 열량 생산량



면 세종, 서울, 전남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부산, 충남, 대구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한편 여가 영역의 6개 지표 중 여가 시간 충분도를 제외하고 문화 여가 지출률, 여가 시간,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1인당 여행 일수, 여가 생활 만족도는 모두 개선되는 추세이다. 여가 활동 만족도의 분포를 보면 세종, 서울, 대전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대구, 전북, 부산은 낮은 편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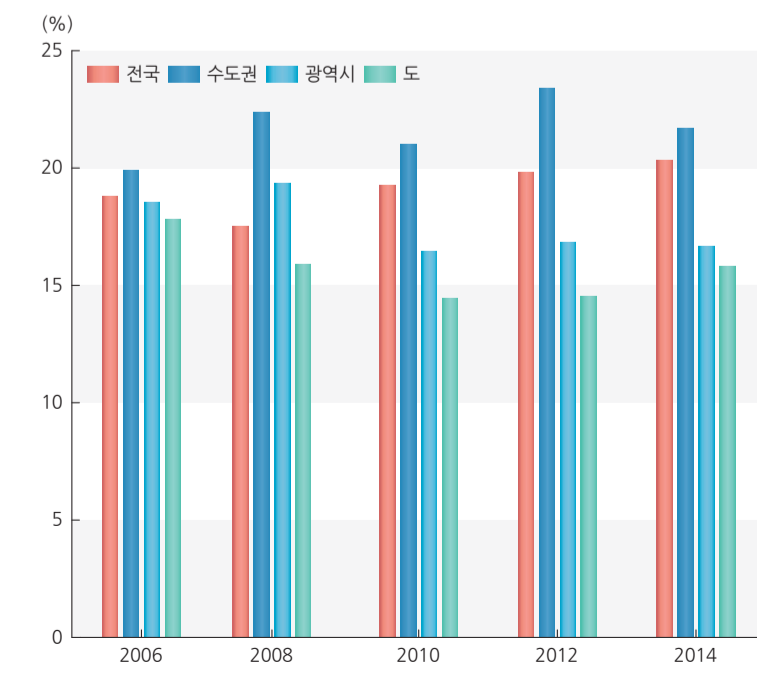
면 세종, 서울, 전남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부산, 충남, 대구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한편 여가 영역의 6개 지표 중 여가 시간 충분도를 제외하고 문화 여가 지출률, 여가 시간,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1인당 여행 일수, 여가 생활 만족도는 모두 개선되는 추세이다. 여가 활동 만족도의 분포를 보면 세종, 서울, 대전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대구, 전북, 부산은 낮은 편에 속한다.

주거는 거주하는 공간에서 향유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개인적 소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비의 성격도 함께 지닌다. 따라서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주거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삶의 질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환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질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은 우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을 통해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물 및

자연과 같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경은 사람들의 거주지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와 같이 사람들의 재산과 삶의 질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8년 주거 영역의 6개 지표 중 통근 시간, 주거 환경 만족도를 제외하고 자가 점유 가구 비율, 주택 임대료 비율, 1인당 주거 면적, 최저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개선되는 추세이다. 자가 소유 주택 분포(2015년 기준)를 보면 전남, 경북, 전북 순으로 자가 소유 주택 비

율이 높게 나타나고, 서울(42.1%), 경기(52.3%), 세종은 낮은 편이다. 한편 환경 영역에서는 9개 지표 중 대기질 만족도, 수질 만족도를 제외하고 미세먼지 농도,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1인당 도시 공원 면적, 토양 환경 만족도, 소음 만족도, 녹지 환경 만족도, 기후 변화 불안도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다. 또한 미세먼지 인식도 분포를 보면 인천, 광주, 경기 순으로 불안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부산, 전남, 제주는 불안함이 낮은 편에 속한다.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



기후 변화 불안도

